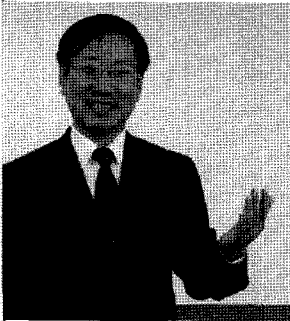


홍보는 존재의 이유 알리는 것, 홍보가 기업 성패 좌우!



지금은 PR을 잘하는 회사와 사람이 성공하는 세상이 되었다.
홍보를 통해 브랜드를 널리 알리면, 마케팅 및 영업에
훨씬 유리하게 된다. 특히 불황일수록 홍보마케팅을 강화해
자사 브랜드를 각인시키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 박영만/ 마케팅홍보연구소장 · VPR 대표

예전에는 자기 PR을 하면 '팔불출'이란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이제는 자기 PR을 안 하면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시대를 맞이했다. 기업 홍보 상담을 하다 보면 가끔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는 경우가 발생하곤 한다. 대부분의 기업 경영주들은 질 좋은 상품을 잘 만들면 고객들이 알아서 사 줄 것이라는 착각속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잘 만든 좋은 상품도 홍보가 안 되면 상품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다.

각종 언론매체에 상품의 장점이 기사화 된다면 회사와 상품은 날개를 달게 되는

것이고, 아무리 좋은 상품도 홍보가 안 되면 고객이 알 수 없기 때문에 팔리지 않는 것이다. 취업 인터뷰에도 마찬가지이다. 구직자가 자기 PR을 못하면 마치 '투명인간' 같아 인사담당자와 면접관에게 좋은 점수를 딸 수 없어 취업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즉, 지금은 PR을 잘하는 회사와 사람이 성공하는 세상이 되었다.

홍보는 기업에게만 필요하다는 오해가 있는데, 이제는 정부나 공공기관의 정책홍보가 절실하다. 농약의 경우에도 국가가 등록해줘 농작물에 사용되고 있으며 유통 농산물의 철저한 사후관리의 과정을 일반

국민들에게 정확히 전달될수 있는 정책홍보가 필요하다. 또한 농약을 사용한 농산물의 안전성을 신문과 방송, 인터넷에 자세히 알려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입할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불황일수록 홍보마케팅을 강화해야

대다수의 국민들은 농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지니고 있다. 이럴때 일수록 농약 제조회사는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가 절실할 것이다. 홍보의 중요성을 간과해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브랜드를 구축하지 못하게 된다. 홍보를 통해 브랜드를 널리 알리면, 마케팅 및 영업에 훨씬 유리하게 된다.홍보는 사람들에게 좋은 기업 이미지를 심어 주어 중소기업은 대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게 해 준다. 특히 불황일수록 홍보마케팅을 강화해 자사 브랜드를 각인시키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최근 들어 홍보 강의가 많아지고 있으며, 홍보 교육에 대한 문의 또한 급증하는 추세이다. 정부기관과 공기업에서 PR 교육 의뢰가 많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심지어는 사회복지단체와 농업기술센터 같은 농업기관 등에서 강의 요청이 온다. 홍보 강의 의뢰가 증가한다는 것은 홍보를 업으로 하는 필자에게 반가운 현상이다. 홍보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싶다. 홍보 컨설팅과 홍보대행사 경험했던 사례와 홍보 강의시 강조했던 것을 모아 홍보 10계명으로 살펴 본다.

박영만의 홍보 10계명

♣ PR이 안 되면 이미 있어도 아예 없는 것과 같다.

PR은 존재의 이유와 존재의 의미를 널리 알리는 행위다. 아무리 좋은 회사, 상품, 서비스도 PR이 안되면 없는 것과 같다. 이미 존재 하는 것도 PR이 안 되면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름 없다. 이렇게 PR은 존재 유무를 좌우한다. 사업의 첫 단계부터 홍보전략을 세워야 한다.

♣ 먼저 PR을, 나중에 광고를 하면 금상첨화

사람들은 전면 광고 보단 박스 기사를 더 믿는다.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려면 광고를,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려면 PR을 활용한다. 홍보는 언론에 의해 하고 싶은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므로 광고를 통해 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면 금상첨화다. 홍보를 한 후에 광고를 하라.

♣ 오프라인 PR과 온라인 PR이 만나면 커진다

오프라인 홍보가 '융단 폭격형' 이라면,



온라인 홍보는 '선택적 미사일형'이다. 기존 오프라인 홍보에 온라인 홍보가 결합한다면 탁월한 PR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오프라인 홍보와 온라인 홍보가 만나면 시너지가 커지게 된다. 홍보도 '디지로그 홍보'가 경쟁력이다.

◆ 검색 첫 페이지에 우리의 존재를 알리게 하라

검색 포털에서 핵심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우리회사, 우리단체, 내 자신이 검색 첫 페이지에 나오지 않는다면 앞으로 생존하기 어렵게 된다. 이제 '검색엔진'은 '생존엔진'으로 진화하고 있다. 검색 첫 페이지에 우리를 노출 시켜라.

◆ 글 보다 사진이나 영상 등 비주얼을 활용하라

사람이 사물에 대한 인식은 텍스트 보다 사진이 강하고, 사진 보다 영상이 훨씬 강하다. 이제 홍보 전략도 사진이나 영상 등 비주얼을 활용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으로 바뀌어야 한다. 홍보와 영상을 만나게 하라.

◆ 직원과 직원 가족을 만족시켜

홍보대사로 임명한다

직원 만족을 넘어 직원 가족까지 만족 시키게 되면, 가족들은 회사의 후원자가 된다. 홍보의 출발은 내부 고객 만족부터 시

작한다. 회사를 사랑하는 직원과 가족은 자발적으로 회사의 홍보대사가 되어 좋은 회사라고 동네방네 입소문 낸다.

◆ 홍보와 마케팅이 서로 만나서 결혼하게 하라

홍보와 마케팅이 만나 결혼하면 '사고 싶은 좋은 이미지'란 아이가 태어난다. 홍보팀과 마케팅팀은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갖추어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 아예 마케팅팀과 홍보팀을 한 부서로 합쳐 시너지 효과를 보는 것도 고려해 보자.

◆ 홍보인은 곤충의 눈, 새의 눈, 물고기의 눈으로 보라

홍보인의 시각은 세 개의 눈으로 봐야 한다. 곤충의 눈은 가까운 곳을 자세히 볼 수 있는 나무를 보고 현미경 시각이다. 새의 눈은 먼 곳을 조망 할 수 있는 숲을 보는 망원경 시각이다. 물고기의 눈은 물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시대의 조류를 보는 트렌드 시각이다. 곤충, 새, 물고기의 눈으로 동시에 봐야 한다.

◆ PR은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보험을 드는 것이다.

PR을 해서 좋은 기업 이미지를 쌓은 기업은 급작스런 위기 상황에서 큰 힘을 발휘한다. 이미지가 좋은 회사는 실수에 대

해 관대한 반면, 좋은 이미지를 쌓지 못한 회사는 위기 발생 시 소비자로부터 외면 받아 잘못하면 망하게 된다. 보험 드는 것처럼 PR을 꾸준히 해서 위기상황을 대비해야 한다.

◆ **피할 것도 알려야 하는 것이 피알(PR)이다.**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린다는 PR은 옛날 이야기다. 이제는 피할 것도 미리 알려야 한다. 지금은 기업 환경이 모두 보여지는 '어항 경영'의 시대다. 잘못된 부분을 감출 수 없다. 사실 그대로 알려야 한다. 그러면 큰 위험은 오지 않는다. 감추고 덮으면 더 큰 화를 부른다.

위에서 열거했던 홍보 10계명만 지켜도 경쟁 회사 보다 앞선 홍보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의 경우엔 독자 또는 시청자

에게 도움이 되는 새로운 정보를 최근의 이슈나 트렌드와 맞게 작성한 보도자료를 기자에게 전해 주면 의외로 쉽게 기사화가 가능하다. 경쟁사 보다 조금만 홍보를 잘 하면 기업 경영이 유리하게 된다. 홍보를 잘하는 기업은 고객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줘 성공확률이 높게 된다.

홍보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홍보부서에만 맡길 수 없다. 회사 전 직원이 홍보마인드로 무장해서 홍보를 도와줘야 한다. 특히 임원·팀장급은 홍보부서에 힘을 실어줘야 하고, 언론 대응 위기관리 교육과 미디어트레이닝 교육을 받아야 한다. 위기관리 교육 후엔 위기관리 매뉴얼을 만들고 실천처럼 모의 연습이 필요하다. PR은 위기관리, 이슈관리, 평판관리가 핵심이며 사전에 교육을 통해 대비를 할수록 좋다. Y

알면 유용한 홍보 관련 사이트 및 커뮤니티

- | | |
|--|--|
| 한국PR협회 http://www.koreapr.org | 가판대 http://www.newsstand.co.kr |
| 한국홍보학회 http://www.kaspr.or.kr | 종합 뉴스 데이터 베이스(신문기사 검색) |
| 한국PR기업협회 http://www.kprca.or.kr | http://www.kinds.or.kr |
| 한국사보협회 http://www.sabo.or.kr | 홍보마케팅 전문뉴스 <기업 & 미디어> |
| 한국언론학회 http://www.ksjcs.or.kr | http://www.biznmedia.com |
| 한국언론재단 http://www.kpf.or.kr | 광고정보센터(ADIC) http://www.advertising.co.kr |
| 언론중재위원회 http://www.pac.or.kr | PR人 http://www.prin.co.kr |
| 한국방송협회 http://www.radiotv.or.kr | Y-Press http://www.ypress.co.kr |
| 신문가게 http://www.newspaper.co.kr | 라이터스 http://www.writers.co.kr |